

개성과 전문성 돋보이는 과학출판 新名門

첨단과학도서 국내보급으로 과학대중화 앞장서는 범양사출판부

전과과학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과학출판의 대표적인 곳으로 꼽히는 범양사출판부. 전과과학사(대표 손영일)가 1956년에 설립, 기초 과학 분야를 비롯 전문이론을 국내에 공급해 온 과학출판의 1세대이자 자존심이라면, 범양사출판부(대표 이은범)는 대중과 과학을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온 그 다음세대다. 전자가 과학이론의 보급에 앞장섰다면 후자는 과학의 철학과 사상 전파에 주력해 왔다.

범양출판사부는 '사'의 '부'라는 명칭에서 보듯 어느 출판사의 생성과 다름을 이름에서부터 풍기고 있다. 이는 사람은 다 알 테고 모르는 사람은 또 모르고 있을 테지만 이 출판사는 직물, 무역, 건설, 유통 등의 6개의 거대기업과 2개의 재단법인을 거느리고 있는 범양그룹(명예회장 이성범) 가운데 모기업인 (주)범양사의 한 부서로 출발했고, 현재도 그 기업체의 한 부서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기업출판부가 그다지 활성화해 있지 못한 우리의 현실에서 범양사출판부의 존재는 특이하게 와닿는다. 우선, 이름을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서도 무역업을 해 큰돈을 만지는 기업체의 돈냄새가 묻어나지 않는다. 그만큼 이 출판사의 이미지는 개성있는 전문출판사로서의 인상이 깊었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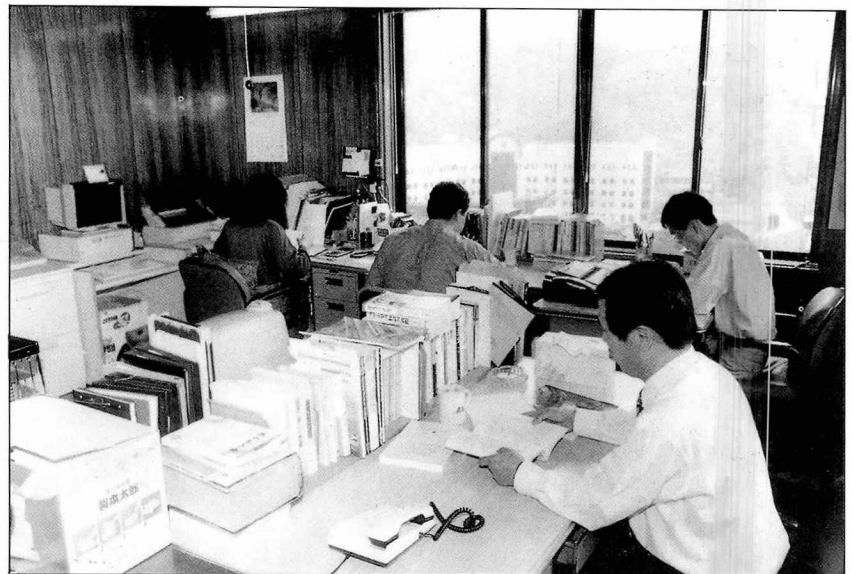
기업체의 한 부서에서 출발

범양사출판부의 출발은 우연한 기회에 시작됐다. 이성범(79) 당시회장이 미국출판중 프 리츠프 카프라 「The Tao of Physics」를 구입, 재미있게 읽고는 "우리독자들에게 읽고 싶"어 번역했으나 출판을 해줄 출판사가 없자 회

사에 부서를 하나 신설, 직접 펴낸 것이다. 그는 문과를 졸업했으나 젊은 시절부터 물리학에 깊이 매료, 상대성이론과 원자물리학의 해설서를 탐독한 이미 전문학자에 육박하는 과학지식을 갖고 있는 과학독자였다. 아인슈타인 탄생 100주년이 되던 79년 3월, 이 출판부는 그 첫 책을 낸다.

이후 현재까지 범양사 출판부가 펴낸 책은 모두 122종, 지난 92년 창간한 계간지 「과학사상」 9종이 있다. 범양사출판부의 특징은 이 출판사의 대표적인 시리즈인 「신과학총서」에 집약돼 있다. 이 출판사의 첫 책이자 현재까지 10만부 이상 팔려나간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F. 카프라)을 비롯해, 「춤추는 물리」(G. 주커브) 「바다 위칭」(D. 모리스) 「발견자들1·2」(D. 브어스튼) 「다윈 이후」(S. 레이골드) 「가이아」(J.B 러브록) 「쿼크에서 코스모스까지」(L.M 레드만) 등 일반의 귀에도 이미 익숙한 이 시리즈는 94년 4월말 현재 40여권 나와 있다.

「신과학 총서」에 드는 책들은 우주와 인간 모든 세계를 거대한 기계로 보는 기계론적 세계관을 비판하면서 모든 존재를 상호보완적으로 보는 유기체적인 세계관을 추구하는 사조를 담고 있는 책들이다. 즉, 결정론적 사고의 테두리를 벗어나 진리의 개방성을 용인하고, 인간중심의 윤리를 중심으로 근대 과학문명의 맹점 및 허점을 보완하는 입장의 내용들이다. 따라서 이 출판사가 내는 책은 많은 수 번역서인데, 국내외서의 비율은 20 : 80 정도. 역서일 경우 원서내용을 부분삭제하거나 축약없이 완벽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도



구기동 공기 좋고 풍경 좋은 곳에 위치한 범양사출판부. "영업의 속박을 받지 않아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었다"고.

판, 색인, 참고문헌 등을 거의 빠짐없이 수록하고, 역자와의 계약에 있어서도 대역하는 일 없이 반드시 직접번역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안한다고 출판담당 이만근(50) 상무이사는 전

출판사의 인원은 편집부 2명, 영업부 2명, 잡지 1명, 그리고 책임실무자인 이만근 이사 1명 등 모두 6명으로 적은 편이다. 대신 김용준, 장희익, 이태수, 신중섭 등으로 구성된 과학사상 편집위원들과 이봉재(한신대 철학과 강사)씨가 비상근주간으로 일하고 있고, 교정 등은 외주를 주어 인력부족을 보완하고 있다. 그룹의 경영일선에서는 물러났으나 출판부의 일만큼은 아직도 이 회장이 일일이 챙긴다고 한다. 그는 요즘도 하루도 빠짐없이 구기동의 출판사와 붙어 있는 한옥 서재에서 「과학사상」에 실릴 글이며, 출판될 책의 목록을 살피

며 "간간한" 의견을 제시한다.

고정팬 5천, 지난해부터 흑자로 돌아서

이만근 이사는 "늘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지난해부터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며 전국에 범양사출판부 책의 고정독자는 2, 3000명 정도로 추산했다. 그들은 범양사출판부의 이름만 달렸다 하면 무조건 사는 고정팬으로 그들 외에도 집의 서가에 최소한 10권 정도 꽂혀 있는 사람의 수는 5000을 헤아린다고. 그만큼 일반 과학독자가 늘어났다는 말이다. "경영수지면을 떠나 양서만을 꾸준히 출판해 온 것, 첨단 과학사상을 국내에 가장 먼저 보급해 온 것, 과학대중화에 앞장선 점에 큰 긍지를 느낀다"고 한다.

— 정혜옥 기자

미국분 미국인 미국놈

들어 보면 우스운 미국, 알고 보면 무서운 미국!

- 강아지 한 마리도 못 죽이는 미국인들이 전쟁은 왜 빵 먹듯이 일으키는가?
- 정말 미국은 번 돈의 절반을 세금으로 떼어 가는가?
-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은 진정 애국자들인가?
- 맥도날드의 감자 튀김은 왜 갑자기 맛이 없어졌는가?
- 미국 이민갈 사람들은 오늘밤 왜 다시 생각해야 하는가?
- 미국은 정말 정의를 위해 테러를 응징하는가?
- 안 사겠다는데 꼭 팔겠다고 계속 문을 발로 차는 귀찮은 외판원 같은 미국인들의 심보를 어떻게 고쳐 주어야 하나?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미국 정보통 백현락! 12년 동안 미국의 실물 경제와 그들의 의식 구조를 철저하게 경험한 공인회계사 백현락이 들려주는 따끈따끈하고 서늘한 미국 이야기!

백현락 지음 값 5,000원
전화 738-0931~2, 팩스 720-3469

